●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aran karan da karan karan karan da karan karan karan karan da karan da karan karan karan karan karan karan da



『루시와 친구들: 겨울 이야기』

정보 마리안느 뒤비크 글·그림, 백지원 옮김 | 60쪽 | 215*170mm | 양장 | 14,500원 주제어 겨울, 계절, 우정, 크리스마스, 눈사람

교과 연계

1학년 2학기 통합(겨울1) 2. 우리들의 겨울 2학년 1학기 국어 8.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2학년 1학기 국어 나 7. 내 생각은 이래요 2학년 2학기 계절 2-1. 그림책에서 만나는 계절 3학년 1학기 국어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깃털 같은 눈송이처럼 반짝이는 루시와 친구들의 겨울 이야기

루시는 기다려요. 사랑하는 친구 아드리앙, 도리스, 레옹, 그리고 마르셀과 함께요.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바로 이 겨울의 첫 눈보라를요! 아주 작은 눈송이 하나가 사뿐, 하늘에서 내려와요. 루시는 눈송이에게 물어요.

"혹시 너 같은 친구들이 더 오고 있니?"

아직은 아닌가 봐요. 눈보라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사이, 루시가 친구들과 함께 뚝딱뚝딱 자그만 겨울 오두막을 지어요. 어, 그런데 무슨 일이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수천 개의 눈송이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겨울 오두막 안에서 도무지 나올 생각이 없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겨울의 첫 눈보라보다 더 중요한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루시와 친구들은 오직 겨울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친구들이 야무진 두 손으로 힘을 모아 겨울 오두막을 짓고, 함께 보내는 겨울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겨울잠에 든 곰 친구 '앙투안'을 꼭 닮은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마음이 한없이 깨끗해져서 미소 짓게 되지요. 찬 겨울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보듬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겨울 벽난로처럼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니까요.



♣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루시와 친구들: 겨울 이야기』는 어떤 책일까요? -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읽으 면서	책 속으로 쑥! 들어가요	2	* 겨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 이야기의 배경에 다가가기
		3	* 함께하기에 따뜻한 겨울 - 등장인물들의 마음 이해하기
		4	* 나의 겨울 파티에 초대합니다! - 이야기의 소재로 상상하기
		5	* 두근두근 트리 꾸미기 - 그림 그리기
		6	* 네가 있어 정말 좋아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7	* 겨울이 주는 선물 -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8	* 하얀 눈송이보다 반짝이는 이 순간 -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9	* 상자 속에 담긴 마음 -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10	* 그리운 친구, 앙투안에게 - 편지쓰기

>>>,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루시와 친구들: 겨을 이야기』는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루시와 친구들: 겨을 이야기

글 작가: 마리안느 뒤비크

그림 작가: 마리안느 뒤비크

출판사: 고래뱃속

◎ 표지를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옷을 입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토끼와 소녀, 거북이, 달팽이, 쥐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친구들이 숲속에서 모험하는 이야기일 것 같다.

겨울이 주는 느낌과 분위기가 페이지마다 가득 펼쳐지지 않을까?

겨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 여름은 '맴맴' 매미 우는 소리를 내고, 가을은 '바스락바스락' 낙엽 부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와요. 겨울은 어떤 소리를 내며 오고, 갈까요?



겨울이 오는 소리

'쌔앵쌔앵' 찬 바람이 부는 소리 '뽀득뽀득' 쌓인 눈을 밟는 소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

'사르르' 눈이 녹는 소리 '보슬보슬' 봄비 내리는 소리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등장인물의 마을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함께하기에 따뜻한 겨울

- ◎ 루시의 친구들이 눈보라를 기다리며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왔나요?
-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나라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인지 떠올려 보고, 그 이유와 함께 적어 보세요.



나는 <mark>블루투스 스피커</mark> 을(를) 가져갈 거야. 왜냐하면

친구들과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싶어.

나의 겨울 파티에 초대합니다!

◎ 루시와 친구들은 멋진 트리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겨울 파티를 열어요. 만약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겨울 파티를 연다면 누구를 초대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나만의 파티 초대장을 완성해 보세요.





초 대 장

받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장소 눈이 내려 하얗게 뒤덮인 산속

파티 일정 눈밭에 뒹굴뒹굴 구르기

딸기잼 만들기 편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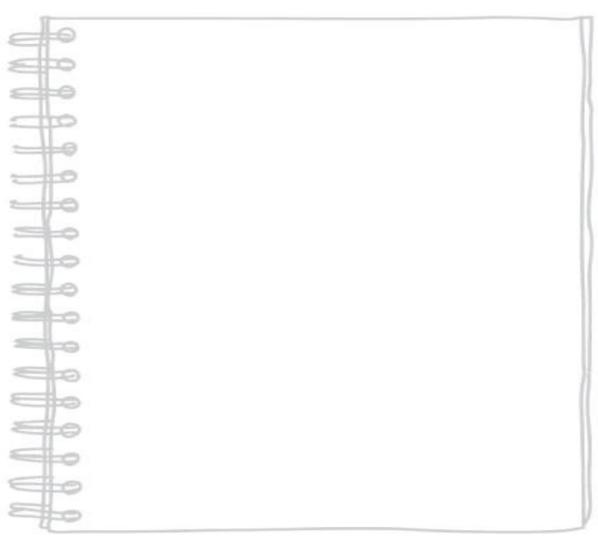
준비물 따뜻한 겉옷, 필기구

두근두근 트리 꾸미기

◎ 루시와 친구들은 종이로 만든 별과 장식으로 트리를 멋지게 꾸몄네요. 나라면 트리를 어떻게 꾸몄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려 보세요.







네가 있어 정말 좋아

◎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몸집이 작은 아드리앙은 자꾸만 눈앞에서 사라지곤 해요. 아드리앙을 더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루시는 자신의 주머니를 내어주지요. 루시와 아드리앙처럼 불편한 친구를 도와준 경험 혹은 도움받은 경험을 돌이켜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비가 와서 추웠지만 우산도 쓰지 않고 부축해 주는 친구가 축구하다 다리를 다쳤을 때 건기 어려운 나를 친구가 부축해 주었다. 다음에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겨울이 주는 선물

◎ 눈사람 만들기는 눈이 오는 겨울에만 할 수 있어요. 호호 불어 먹는 뜨거운 호빵도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지요. 오로지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겨울이 주는 선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깥에서 신나게 노느라 꽁꽁 언 손과 발을 아빠 등에 쏙 넣는 순간

이불속에 폭 들어가 귤을 까먹으며 짱구 극장판을 보는 하루

하얀 눈송이보다 반짝이는 이 순간

○ 루시는 그토록 기다리던 눈보라가 찾아왔는데도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 속 루시의 생각이나 감정을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오늘은 꼭 멋진 눈보라를 볼 거야



야호~ 드디어 눈보라가 오나 봐!



멋진 오두막에서 보내는 보석 같은 시간이야! 행복해

상자 속에 담긴 마음

○ 아드리앙은 소중한 친구들에게 멋진 자기 자신을 선물했어요. 선물을 담는 예쁜 상자에는 또 어떤 것이 담길 수 있을까요? 선물과 그 속에 담긴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엄마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게임기

그 속에 담긴 마음

그동안 숙제를 잘했으니, 네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거라 선물 주고 싶은 사람 <u>아빠</u>

가장 주고 싶은 선물

휴가

그 속에 담긴 마음

맨날 회사만 가지 마시고, 저랑도 좀 놀아 주세요. >>>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그리운 친구, 앙투안에게

◎ 루시와 친구들은 겨울잠 자는 곰, 앙투안을 그리워하며 그를 꼭 닮은 눈사람을 만들어요.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이 있나요? 앙투안을 그리워하는 루시와 친구들을 대신해서 편지를 적어 보세요.

앙투안, 안녕?

겨울잠을 자느라 허리가 아프진 않니?

네가 가을부터 쿨쿨 자고 있어서 나와 친구들은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

너는 무슨 꿈을 꾸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자는 거니?

나와 친구들은 그동안 오두막도 짓고, 겨울 파티도 하며 겨울을 즐겁게 보내고 있어.

오늘은 너를 꼭 닮은 눈사람 친구를 만들었어.

너처럼 부드러운 털을 가진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름은 앙투안이라고 지었단다.

얼른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놀자.

